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추백리, IB 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청장 김동태)은 지난 20일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추백리에 감염된 종계가 낳은 알을 통하여 전파되는(난계대 전염) 질병인 추백리와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전염성기관지염의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각 질병의 주요 증상과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추백리

1. 주요 증상

- 병아리는 부화후 2~7일 이내에 발생한다.
- 회백색 설사를 한다.
- 호흡곤란, 쇠약 및 경련에 이어 4~10일후 죽게된다.
- 중병아리는 관절염을 일으킨다.
- 산란중인 종계나 채란계에서 심한 패혈증세를 나타내면서 죽는다.

2. 예방 대책

- 혈청학적 검사에 의해 양성계를 검색, 도래하는 방법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 종계장에서는 4개월 이상된 닭에 추백리 감염 여부를 정기 검색하고 부화장에서는 입란전 포르말린으로 소독한다.
- 실용계 농장에서는 추백리 검색을 철저히 하는 종계장에서 병아리로 구입한다.
- 양계장내 사람이나 각종 차량 등의 출입시 철저히 소독하고 동물의 접근을 막는다.
- 이 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확인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한다.
- 등록 종계장에서 추백리 방역실시 요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종계는 신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요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신청한다.

● 전염성기관지염

1. 주요 증상

- 어린 병아리에 감염될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신장형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심한 설사가 난다.
- 골골 소리를 내며 점액 배출을 위해서 머리를 흔들며 재채기 한다.
- 산란중인 닭이 감염되면 연란, 기형란, 파란 등을 동반하며 산란저하가 나타난다.
- 어린 병아리때 감염되면 산란일령에 도달하여도 산란하지 않는다.

2. 예방 대책

- 양계 및 계사 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한다.
- 외부인을 통제하고 방문자의 신발, 의복 등을 교체한 후 출입토록 한다.

- 발육단계별로 백신을 접종하고 정기적인 소독등 위생적인 사양관리한다.

- 혈청형이 다른 경우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백신접종과 아울러 병원체가 양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닭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접종 요령〉

구 분	백 신 접 종 시 기		
	1차 생독	2차 생독	3차 생독
육 계	1일령 (분무 또는 점안)	-	-
종 계	1일령 (분무 또는 점안)	6~8주령 (음수)	14~16주령 (사독 근육주사)
산란계	1일령 (분무 또는 점안)	6~8주령 (음수)	12~14주령 (사독 근육주사)

※ 생독백신은 실온 등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효과가 없어지므로 반드시 사용 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온도에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사독 오일백신의 경우 얼리는 일이 없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축협중앙회

송찬원 회장 유임



◁ 송찬원 회장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21일 동회 2층 강당에서 '97년 2회 임시총회를 열고 민선 3기 축협중앙회 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된 송찬원 회장과 박철

우 전부회장, 지설하 전충남대 교수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에서 총 유효표 1백94표중 (조합장 1백93명 총회위원장 1명) 과반수가 넘는 1백 11표를 얻어 송회장이 재선되었다.

월간 '축산' 재창간

동회는 월간 '축산진흥'지의 제호를 지난 3월 공모한 결과 총 1백87명이 응모자 중 유승우 (경기도 성남시)씨의 월간 '축산'이 당선되었다.

이번 제호를 변경함에 따라 독자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갈 것으로 축협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환경공익카드 발매

동회 지난 12일부터 회원이 이용한 카드 금액의 0.1%를 환경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환경보존 공익카드인 '축협 그린피아 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 회원에게는 카드대출 금리인하 (0.5%), 연회비 면제, 자기앞 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외환 환전시 수수료를 20% 면제 되고 법률상담시 무료, 컨설팅 서비스(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가격 ARS 서비스의 혜택이 부여된다.

회원 자격기준은 조합원, 축산업 관련 종사자, 근로소득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방침

환경부는 '95년 7월 25일 제정·고시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에 의거, 최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량화 시행을 위한 실태파악 실시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제조·수입자가 감량화 목표율을 오는 6월 30일까지 통지하도록 한 지침에 의거, 실태파악을 비롯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플라스틱 난좌 및 특수란 포장용 팩에 대한 처리 및 재활용방안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제정·고시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의하면 계란제품의 포장되는 난좌와 팩용기를 '98년 1월1일부터 50%이상 회수 또는 재활용 처리 및 감량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워싱턴 주립대 공동연구 협약 조인식



농촌진흥청(청장 김동태)은 지난 21일 서

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총장 새뮤얼 스미그)와 농업기술과학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따라 양측간에 농업과학기술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인식은 그동안 꾸준히 공동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첨단농업기술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협약을 조인했다.

한편 조인식에 앞서 1백50여명의 축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 25주년 행사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회장 박영인)는 지난 30일 창립 2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업계, 학계 등 250여명과 미국 WGN TV/라디오와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양돈산학연구회 명칭 변경

(사)양돈산학연구회(회장 이길재)는 4월 29일 (사)한국양돈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는 기존의 명칭이 타기관과 유사해 초래되는 혼동을 없애고 사단법인 인가전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 회원과 양돈인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 '97년 제1차 임시총회 및 단합대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회장 심상무)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 해운대 글로리 콘도호텔에서 임시총회 및 단합전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부 행사에서는 2월 20일 정기총회 이후 이사회에 상정했던 중요한 건의 사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98한국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사항 보고와 운영위원 구성을 조직기로 의결했으며 추진위원 조직은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한 6월에 있는 한국양계박람회의 적극 참여와 후원을 결의했다.

2부 행사에서는 농업기계연구소 윤진하 과장의 '축산시설환경기계 표준화, 규격화 정책방안'과 동회의 김용채 부회장의 '축산시설환경기계 산업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구제역 방역실시에 따른 담화문 발표

최근 대만에 돼지구제역이 발생하여 단, 2개월만에 400만여마리의 돼지가 피해를 보고 수출이 전면 중단되는 등 대만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줌에 따라 정부 관련부처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담화문으로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과 같이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입과 발굽이 썩어 결국에는 폐사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구제역은 동물과 고기를 통해서 전염될 뿐만 아니라 사람, 물, 공기에 의해서도 급속히 전파되는 전염병으로 철저한 예방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34년도에 구제역이 근절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한 사실이 없어 우리의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제역예방을 위해 국민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에는 가급적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휴대를 금하여 주시고 공항·항만의 휴대품검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만, 중국, 동남아지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후 2주일 이내에는 국내의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등 축산물의 밀수감시에 협조하여 주시고 밀수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립동물검역소 등 인근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내 축산농가에서는 농장의 청결유지, 정기적인 소독실시, 외부인의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 구제역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축산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일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 경 식
내 무 부 장관 강 운 태
농 립 부 장관 정 시 채
해양수산부 장관 신 상 우

농림부

식육처리기술원 건립 추진

농림부(장관 정시채)는 육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기반을 넓히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식육처리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농림부는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세워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할 방침이고, 금년말까지 완공, 내년중에 개원할 계획이다.